

# EYA NEWSLETTER

## ENGLISH TITLES

### FICTION

제목 : TOO CLOSE TO BREATHE  
가제 : 숨 쉬기엔 너무 늦은 그 순간  
저자 : Olivia Kiernan  
출판사: Dutton(Penguin Random House)  
발행일: -  
분량 : -  
장르 : 소설/ 스릴러



- \*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모두 수십 만 달러 규모로 2권까지 판권계약 체결
- \* 타나 프렌치(**Tana French**)에 비견되는 아일랜드 출신 신예 작가의 스릴러 데뷔작

저명한 생물학자가 자신의 집 침실에서 목을 매 숨진 상태로 발견된다. 누군가 침입한 흔적도 없고 시신의 전반적인 상태를 봐도 자살이 거의 확실해 보였지만 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한동안 일을 쉬고 복귀한 여형사, 프랭키였다. 복귀하자마자 사무실에 출근하기도 전에 죽은 엘레노어 코스텔로의 집부터 들른 프랭키는 직감적으로 이 사건이 교묘한 살인임을 깨닫는다. 복귀 후 처음 맡은 사건, 그리고 어쩌면 평생 감내해야 할지도 모르는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탓에 불안하고 초조한 증상이 수시로 올라와 부담감도 크지만 프랭키는 확신을 버릴 수가 없다. 작가와 같은 아일랜드 출신의 유명 작가 타나 프렌치의 작품과 미국에서 3-4년 전 인기리에 방영된 TV 드라마 <The Killing>에 비견되는 오싹하고 어두운 범죄가 더블린을 배경으로 펼쳐진다.

법의학과 프로파일러로 4년간 교육을 받고, 곧장 형사로 9년을 일한 후 수사팀을 이끄는 경감으로 6년을 달려온 프랭키는 소속 경찰서에 몇 안 되는 강력사건 전담 여형사로 출중한 실력을 내내 인정받았지만, 더블린 역사상 최악의 살인마를 추적하면서 평생 지울 수 없는 충격에 빠졌다. 외상이 없는 정신적 고통은 그간 온갖 범죄자들을 보고 상대해온 프랭키도 어찌지 못할 상처를 남겼고, 결국 휴직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 팀 전체의 환영을 받으며 마침내 복귀한 10월의 어느 날, 프랭키가 불려간 곳은 서른아홉 살 여성이 목을 매 숨진 현장이었다. 여성이 자살을 택할 때는 보통 칼을 사용하거나 약을 삼키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잘 알고 있는 프랭키는 남성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생을 끝냈다는 것부터가 처음부터 특이하게 다가왔다. 그리고

또 하나, 다소 부풀어오른 입 가장자리에서 희미하게 웃고 있는 듯한 미소가 느껴졌다. 몸이 굳어지면서 우연히 남은 흔적인지, 상상이 과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프랭키는 뭔가 혼자서 무덤까지 짊어지고 가려는 비밀이 희생자 혹은 자살자의 마지막 순간 머리에 떠올랐으리란 생각을 했다. 7년째 앞집에서 이웃으로 지내온 사람이 매일 똑같은 시간에 출근길에 나서던 엘레노어가 그날 따라 기척이 전혀 없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아침 일찍 신고한 덕분에 시신은 비교적 빨리 발견됐다. 사망 추정 시각은 전날 저녁 여덟 시, 누가 침입한 흔적은 없었다. 하지만 사무실로 돌아온 프랭키는 발견 직후 촬영된 사진과 두 눈으로 보고 온 엘레노어의 모습을 다시 꼼꼼하게 보고 떠올리면서, 자살이 절대 아니라는 확신을 갖는다. 손의 모양, 귀걸이, 손톱에 칠해진 매니큐어의 형태, 아주 사소하고 그래서 눈에 들어오지 않는 수많은 흔적이 엘레노어의 죽음은 스스로 원한 것이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일반적인 자살자의 몸에서 본 적 없는 단서를 토대로 엘레노어의 죽음을 살인사건으로 조사하기로 결심한 프랭키는 그녀가 숨진 시각에 방에 있었던 사람을 찾는 데 주력한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되면서 뜻밖의 사실들이 밝혀진다. 엘레노어는 알려진 것처럼 그저 연구에 몰두하는 평범하고 유능한 학자가 아니었다. 어딘가 수상쩍은 그녀의 생전 삶을 추적하던 프랭키의 팀은 죽음에 대해 환상을 가진 기괴한 자들로 이루어진 ‘다크 웹’이라는 집단을 발견한다. 가학, 피학적 행위를 취미로 일삼는 이들은 이름처럼 더블린 곳곳에 거미줄처럼 복잡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다. 얼마 후, 또 다른 희생자들까지 추가로 발견되고 모두 엘레노어와 이상한 연결고리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다. 다크 웹의 최종 목적은 무엇이고, 프랭키와 다른 사망자들은 어떻게 연관되어 있을까? 프랭키는 커커이 베일에 싸인 이 섬뜩한 범죄에 다가서지만, 내면에서 소용돌이치는 자신의 상처도 충격적인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수록 더욱 쓰라려온다. 불을 끄느라 제 몸도 다 타버리는 상황을 만들지 않고 프랭키는 사건을 무사히 해결할 수 있을까?

#### <저자 소개>

올리비아 키어넌(Olivia Kiernan)은 아일랜드 출신 작가로 아일랜드 문화, 특유의 스토리텔링, 시골 지역의 특색에 관한 글을 꾸준히 써 왔다. 영국 서식스 대학교에서 카이로프랙틱을 전공한 뒤 동 대학 석사과정에서 글쓰기를 공부했다. 피쉬 퍼블리싱이 주최하는 국제 단편소설 공모전(International Fish Short Story), 바스 단편소설 공모전(Bath Short Story Competition), 바스 아동소설 공모전(Bath Childrens' Novel Competition)에 후보로 선정되고 2015년과 2016년 BBC 'Class Dismissed' 극본 공모전에서 결승 후보에 올랐다.

제목 : THE BOOK OF ETTA

가제 : 에타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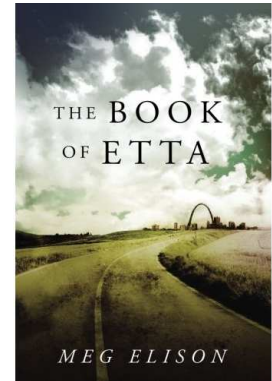
저자 : Meg Elison

출판사: 47North

발행일: 2017년 2월 21일

분량 : 314 페이지

장르 : 소설/ SF



- \* 「퍼블리셔스 위클리」 선정 **2017년 봄 시즌 도서 Top 10**, 아마존 도서 에디터 선정 **SF & 판타지 부문 2017년 2월의 책**
- \* **2014년 필립 K. 딕 어워드(Philip K. Dick Award)**를 수상한 **1권**에 이은 <어디로도 달지 않는 길(Road to Nowhere)> 시리즈의 두 번째 이야기
- \* “작가는 성폭력의 물리적, 정신적 영향을 세밀하게 조명하고 등장인물과 독자 모두를 한 사회의 문화에서 터부시되는 존재로 사는 것이 어떤 기분일지 깊이 생각하도록 이끈다.” – 「북리스트」

인류 종말의 가능성을 이야기할 때 절대 빠지지 않는 요소 중 하나가 전염병이다. 인간의 지적 능력과 뛰어난 기술로도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병이 등장하고 온 지구를 휩쓴 세상, 그 병이 유독 여자와 뱃속의 태아의 목숨을 무섭게 앗아간다는 무시무시한 설정으로 시작된 <어디로도 달지 않는 길(Road to Nowhere)> 시리즈의 두 번째 이야기가 완성됐다. 2014년에 나온 1권 『이름없는 산파의 이야기』가 극소수의 여성만이 살아남아 남자들의 성 노예로 끌려 다니는 세상에서 남자로 변장한 채 남몰래 숨어 사는 여성들을 위해 산파로 살아가는 주인공의 삶을 그렸다면 2권은 그 산파가 살던 시대로부터 100년이 흐른 뒤, 여전히 극심한 성비 격차가 회복되지 않은 세상에서 성소수자로 태어난 주인공의 삶을 조명한다. 성별은 부모처럼 자신이 선택할 수 없는 태생적인 요소이건만 여자라는 이유로, 또 여자의 비율이 적고 귀중하다는 이유로 사회에서 여자에게 강제적으로 주어지는 역할이 당연시되는 사회에서 갈 곳을 잃은 주인공의 이야기는 소설이지만 우리가 사는 현실과 수많은 점점을 보여준다.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적인 존재로 남은 이름 없는 산파가 마지막으로 정착해서 살았던 마을에서 100여 년 뒤에 태어난 에타는 여성 한 명당 남성 열 명이라는 극심한 성비 불균형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세상에서 살고 있다. 그때와 크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여성의 선택권이 하나 더 늘어났다는 것이다. 처음 전염병이 지구 전체를 휩쓸고 남자의 수가 우월해졌을 때만 해도 여자들은 힘센 남자들 손에 붙들려 끌려 다녀야 했지만, 아이를 낳고 대를 이을 수 있는 여성들의 지위가 더욱 귀하게 여겨지면서 이제는 여자들이 여왕벌처럼, 수많은 남자들을 거느리며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다. 아이를 임신하고 낳는 건 아직도 목숨 걸고 도전해야 하는 위험한 일이었지만 그래도 종족 번식이라는 희대의 임무를 해내는 건 여성들이고 그것이 권력이자 특권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 역할을 거부하거나 제대로 해낼 수 없는 여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기능은 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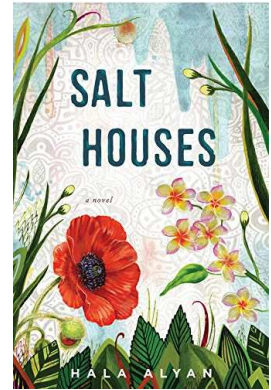
파였다. 아이 낳는 여자들을 뒷바라지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여자로 태어난 에타는 가족들, 주변 사람들의 비난과 압박에도 이 두 가지 중 어느 쪽도 되고 싶지 않았다. 여자가 아이 낳는 기계로 살거나 그들을 돕는 도우미로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도 없었다. 결국 에타는 남자 행색을 하고 ‘에디’라는 가명으로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값나가는 과거의 유물을 발굴하고 다니고 여자들이 노예처럼 사고팔리는 일이 여전히 이루어지는 곳에 몰래 들어가 위험에 처한 여성들을 구해낸다. 그렇게 여행을 다니던 에타는 자신처럼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깨닫고, 남자와 여자 어느 쪽에도 낄 수 없는 성소수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도 여실히 느낀다. 그러던 어느 날, ‘에스티엘’이라는 도시에 도착한 에타는 시 전체에 군림하는 ‘라이언’이라는 폭군의 존재를 알게 된다. 이름 없는 노파가 살았던 시대처럼 남자가 지배하는 세상, 여자들은 남자의 사유재산이 되는 세상을 꿈꾸는 라이언은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모아 주변 마을을 하나씩 집어 삼키기 시작한다. 불을 지르고, 폭력을 행사하며 집집마다 여자와 소녀들을 순순히 내놓지 않으면 어떤 무서운 일도 서슴지 않는 이 야만적인 집단은 결국 에타가 아끼는 사람들마저 데려가 버린다. 사회와 동떨어져 조용히 살아가던 에타는 반드시 복수하리라 다짐한다. 그러나 함께 싸울 동료도, 무기도 하나 없이 심지어 자신이 여자라는 사실을 들키지 말아야 하는 부담감까지 않은 채로 두려움이라곤 모르는 라이언을 이길 수 있을까? 결코 생경하지 않아 더욱 섬뜩하게 느껴지는 소설 속 상황과 사회의 모습이 흡입력을 더하는 독특한 SF 소설이다.

#### <저자 소개>

멕 엘리슨(Meg Elison)은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UC 버클리에 들어가 공부를 마쳤다. 2014년에 발표한 소설 『THE BOOK OF THE UNNAMED MIDWIFE』로 필립 K. 딕 어워드(Philip K. Dick Award)를 수상했다.

제목 : SALT HOUSES  
가제 : 소금의 집  
저자 : Hala Alyan  
출판사: Houghton Mifflin Harcourt  
발행일: 2017년 5월 2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소설/ 가족 소설



- \* **Indie Next Pick**, 도서 웹블로그 **The Millions** '2017년 가장 기대되는 책', 버즈 북스(**Buzz Books**) **2017년 봄/여름 시즌 도서로 선정**
- \* “작가는 독자들을 파리, 보스턴, 레바논으로 흩어져야만 했던 어느 아랍 가족의 마음과 감정 속으로 데려가서 인간의 정신적 회복력을 아름답게 그려낸다.” - 「라이브러리 저널」
- \* “소설 속 가족들이 겪는 일들은 전 세계 이민자, 난민들의 삶을 그대로 비춘다.” - 「커커스 리뷰」

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대대손손 살아가는 가족들의 이야기에는 그 나라와 가족의 오랜 전통과 독특한 문화가 그대로 녹아 있다. 의지와 상관없이 고향을 버려야 했던 사람들, 정치적인 이유와 사회적 혼란으로 어쩔 수 없이 낯선 땅으로 가서 억지로 정착을 해야만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그런 뿌리를 강제로 잘린 아픔과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고, 동시에 새로운 뿌리를 내리기 위해 애쓰고 낯선 곳에서도 가족과 고국의 전통을 지키려고 발버둥친 노력이 더해져 더 큰 감동을 안겨준다. 팔레스타인 출신인 작가는 종교 분쟁으로 지금도 소란이 끊이지 않는 중동 지역에서 시작된 한 가족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그 감동을 전달한다. 1963년부터 2014년까지, 총 4대에 걸쳐 이어지는 아랍 가족의 방대한 역사에는 고향을 다시는 찾을 수 없게 된 여러 세대의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어떻게 적응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생생하게 담겨 있다.

딸 알리아의 결혼식을 하루 앞둔 날 저녁, 온 가족이 살마의 집에 모여 파티를 벌였다. 이미 15년 전, 팔레스타인이 고향인 살마의 가족들은 이스라엘의 이주 정책에 따라 살던 곳을 떠나야 했지만 당시 집을 잃은 동포들이 대부분 텔 아비브 인근, 야파라는 항구 도시에 마련된 이주자 수용소로 발길을 옮길 때 살마는 남편의 경제적인 형편이 꽤 넉넉한 덕분에 요르단 서부, 나블루스라는 도시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살마 자신이 결혼할 때 친정엄마가 내놓았던 그릇들을 익숙한 것을 찾아보기 힘든 나블루스의 어느 시장에서 발견하고 울음을 터뜨렸던 것이 엇그제 같은데, 어느새 그 그릇들을 딸 결혼 파티를 위해 내어놓고 있다는 사실에 살마는 잠시 회한에 젖는다. 열여섯 어린 나이에 정해진 혼처로 시집을 보내야 했던 첫딸과 달리 사랑하는 남자를 찾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둘째 딸을 생각하면서 살마는 커피 찌꺼기로 딸의 미래를 점친다. 워낙 그 실력이 용해서 파티에 모인 친지들이며 아이들의 친구들까지 살마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나 잔뜩 기대를 하는데, 오랜 세월이 녹아 있는 그 커피잔 바닥에 남겨진 커피 찌꺼기는 살마에게 반갑지 않은 소식을 전해주었다. 아일라와 아일라의 아이들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게 되리라는 점괘가 눈에 들어온

것이다. 살마는 이 사실을 혼자 간직하기로 결심하고, 사람들에게는 다른 점괘를 돌려댄다. 딸의 미래가 실제로 처음 자신이 예감한 대로 흘러가지 않기를 바랐지만, 그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몇 년 뒤인 1967년,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격전을 벌이고 요르단, 시리아까지 가담하는 ‘6일 전쟁’이 발발하면서 살마는 겨우 터를 잡은 나블루스를 떠나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게다가 아들 무스타파는 피할 곳 없이 정치적으로 무장한 집단의 일원이 되고, 결국 그곳에서 아까운 목숨을 잃고 만다. 무스타파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아일라의 남편인 아테프도 팔레스타인 지역에 갇혀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지만 가까스로 홀로 탈출할 수 있었고, 아내를 데리고 쿠웨이트로 거처를 옮겨 세 아이를 키우면서 삶을 꾸려간다. 그러나 탈출 당시에 혼자서만 기억하는 아픈 사건과 죄책감은 평생을 따라다니며 아테프를 괴롭힌다. 1990년, 이라크와 쿠웨이트 사이에 전쟁이 터지자 아일라의 가족들은 또 다시 살던 곳을 떠나 요르단의 수도 암만으로 다시 몸을 피한다. 세 아이들은 대학 진학을 위해 미국 보스턴으로, 베이루트로, 파리로 뿔뿔이 흩어져 각자의 가정을 이루지만 낯선 곳, 낯선 도시에서 어느 쪽에도 완전히 소속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삶은 이 아이들이 꾸려가는 새로운 가정에도 그대로 따라다닌다.

살마의 이야기에서 시작해 아일라, 아일라의 세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이 꾸린 가정까지 4대에 걸쳐 총 일곱 명의 인물의 관점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에는 각기 다른 시대와 각기 다른 장소에서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소외감과 불안감을 느끼는지 그 세밀한 감정과 경험이 녹아 있다. 미국에서 대학에 다니지만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익숙해지지 않는 문화, 정치적 체계가 전혀 다른 곳에서 극단주의자가 되어 가는 이민자들, 봉 떠 있는 이민자라는 사실이 싫으면서도 묘한 자유로움을 느끼는 이민자의 아이들 등 지리적, 정서적, 문화적으로 촘촘하게 얹힌 이들의 복합적인 삶은 깊은 감동을 주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 <저자 소개>

할라 알리안(Hala Alyan)은 팔레스타인 출신으로 현재 미국 맨해튼에 살면서 시인이자 임상심리학자로 활동 중이다. 「Missouri Review」, 「Prairie Schooner」, 「Colorado Review」 등 여러 간행물에 글을 기고해 왔다.

제목 : REPRESSED

가제 : 억눌린 기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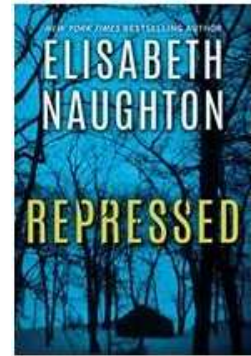
저자 : Elisabeth Naughton

출판사: Montlake Romance

발행일: 2016년 7월 26일

분량 : 316 페이지

장르 : 소설/ 로맨스, 서스펜스



- \* 미국 로맨스소설협회가 수여하는 **RITA Award** 로맨틱 서스펜스 부문 최종 수상후보로 선정
- \* 에스토니아 판권 계약 체결
- \* “독자들을 이야기에 꼭 빠지게 만들 줄 아는 재능 있는 작가가 쓴 탄탄한 로맨틱 서스펜스” - 「커커스 리뷰」

부모님이 알면 크게 꾸짖을 만한 일들이, 그날 밤 사만다의 눈 앞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주변이 온통 시커먼 한밤중에 오빠 세스가 누군가와 심하게 다투는 것 같았는데, 절대 하지 말라고 엄마아빠가 엄포를 놓았던 욕설이 오빠 입에서 마구 쏟아져 나왔다. 두 사람은 숲 속 통나무집에서 서로 치고 받고 욕을 하며 싸우더니 밖으로 나와 물가로 향했다. 사만다는 들키지 않게 몸을 숨기며 계속 돌을 쫓아가면서도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다. 오빠를 도와줘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될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살금살금 뒤를 밟던 중, 침병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제야 가까이 달려간 사만다는 누군가 물 속에서 다른 한 사람의 축 처진 몸을 끌어내는 모습을 보았다. 갈색 머리, 마른 몸, 긴 다리, 이미 축 늘어진 채 물에서 고집어내진 사람이 오빠 세스였다. 그 옆에서 죄책감 가득한 눈으로 사만다를 응시한 건 온 동네에 문제아로 소문난 아이, 벌써 몇 달 전부터 부모님이 같이 어울리지 말라고 오빠에게 신신당부했던 그 아이였다. 세스는 그렇게 허무하게, 사만다가 보는 눈 앞에서 저 세상 사람이 되고 말았다. 너무나 큰 충격에 빠진 사만다는 자신도 모르게 그날의 기억을 대부분 잊었다. 거대한 충격이 기억을 누르고 또 눌러 머릿속에서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꼭 억눌러버린 것이다. 고향을 떠나 다른 도시에 정착한 사만다는 다시는 이 고통스러운 곳으로 돌아올 일이 없기를 바랐지만 뜻대로 되지는 않았다.

오빠가 살해당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17년이 흐른 뒤, 몸이 아픈 엄마 때문에 사만다는 어쩔 수 없이 샌프란시스코를 떠나 오리건 주의 고향마을, ‘히든 폴스’로 돌아왔다. 엄마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살던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고 싶어했지만 병든 몸으로 혼자 해내기엔 역부족이라 사만다가 도와드려야 했다. 하지만 금방 처리될 줄 알았던 것이 큰 오산이었다. 물건을 못 버리고 꾸역꾸역 모아서 쌓아놓는 엄마의 습관 때문에 집 안은 거대한 창고 내지는 재활용품 처리장같이 변해 있었고, 이런 집이 금세 팔릴 리가 만무했다. 일단 정상적인 집으로 만들어놓고 난 뒤에야 내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만다는 일이 처리될 때까지 머물기로 결심하고 원래 직업인 화학교사로 일할 곳을 찾다가 모교에서 자리를 얻는다. 돌아오고 싶지 않았던 집,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고등학교 시절의 기억과 제대로 마주한 사만다 앞에 또 다른 과거의 흔적이 나타났다. 에단이라는 낯설면서도 어딘가 친숙한 남자, 임상 심리치료사라는 묘한 남자였다.

사실 에단도 히든 폴스 출신이지만 그 역시 사만다처럼 고향을 잊고 다른 곳에 정착해서 살았다. 그러다 히든 폴스로 거처를 옮긴 토머스 애들러라는 청소년이 심리적인 문제로 심각한 문제에 시달리자 법원이 담당 치료사로 에단을 지정하는 바람에 그도 어쩔 수 없이 다시 고향을 찾은 것이다. 교사와 치료사로 마주한 두 사람은 보는 즉시 서로에게 강하게 끌리고, 토머스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는 과정에서 그 감정은 더욱 더 발전해 나간다. 에단은 사만다가 과거의 지울 수 없는 기억 때문에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마음 어딘가가 크게 망가진 채로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는다. 그러나 정작 사만다 자신은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17년 전의 끔찍한 사건을 아는 누군가가 신원을 밝히지 않고 사만다를 괴롭히기 시작하고, 급기야 숲 속으로 산책을 나간 두 사람은 언제 묻혔는지 알 수 없는 유골을 발견한다. 세스가 숨진 시기에 실종된 아이의 이야기가 다시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을 통해 돌기 시작하고 에단은 끝까지 감추려고 했던 자신의 비밀, 그 시기에 소년원까지 들어갔다 나왔던 부끄러운 기억이 만천하에 특히 사만다에게 드러날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한다. 세스를 죽인 범인은 누구일까? 사만다와 에단 모두 너무나 벗어나고 싶지만 강하게 붙들려 있는 과거의 악몽에서 헤어날 수 있을까? 더욱 가까워지는 두 사람의 관계만큼 점점 더 깊은 수수께끼로 향하는 사건은 끝까지 책을 손에서 놓을 수 없게 만드는 흡입력을 발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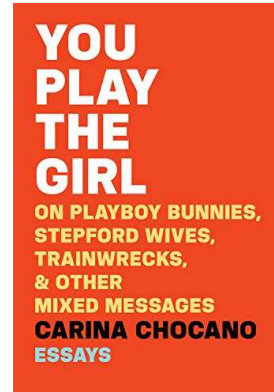
#### <저자 소개>

엘리자베스 노트(Elisabeth Naughton)은 중학교에서 과학선생님으로 일하다가 전업 작가로 데뷔하여 『Eternal Guardians』 시리즈 등으로 뉴욕타임스, USA 투데이, 월스트리트 저널 베스트 셀러 작가 대열에 올랐다.



## **NON- FICTION**

제목 : YOU PLAY THE GIRL  
가제 : 여성은 배역이 아니다  
저자 : Carina Chocano  
출판사: Mariner Books  
발행일: 2017년 8월 8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에세이/ 사회학(여성학)



- \* “정신이 번쩍 들게 한 책. 물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은 금붕어처럼, 소녀시절에 내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알게 됐다. 남성들의 즐거움을 위한 문화적 산물임을 비명을 지르며 깨달았다.”  
- 작가 겸 감독 질 솔로웨이
- \* “작가는 침투력과 은근한 성차별주의가 담긴 문화의 다소 섬뜩한 면을 너무나 영리하고 위트 있는 에세이로 폭로한다.” - 『How to Be a Person in the World』의 작가 헤더 히브릴레스키

“젊은 여자”란 어떤 존재인가? 영화나 텔레비전, 잡지, 광고에 등장하는 젊은 여자의 모습을 보면 뭔가 확실한 특징이 있는 것도 같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 어떨 때는 한껏 섹시함을 강조한 누군가의 조수로, 다른 곳에서는 구해줄 왕자를 기다리는 공주로, 때로는 도덕적으로 절대 흔들림 없는 천사이긴 한데 주관적인 생각은 전혀 없는 존재로 그려지기 때문이다. 주인공인 영웅이 완벽해지기 위해 어떻게든 소유하려는 존재일 때도 있다. ‘젊은 여자’의 이미지는 이렇듯 아주 추상적이면서 이상을 담고 있으며 표준화되어 있으면서도 오락가락 변하는 유령 같은 특징이 있다. 동화책과 만화영화를 통해 여성의 이미지를 구축해가는 딸아이를 보면서 저자는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여성의 이미지, 역할, 의무가 얼마나 엄청난 영향을 발휘해왔는지 깨닫고 이 책에서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준다. 무엇이 여성을 이상을 실현하는 대상으로 만들고, 분해하고, 목표로 삼도록 만들며 마치 사람이 아닌 물건처럼 여기도록 만들었을까? 어쩌다 여성들은 문화 곳곳에 배인 이러한 생각을 스스로를 평가하는 잣대로 삼게 되었을까? 대중문화 비평가이자 저자의 개인적인 경험이 녹아 있는 에세이에서 그 충격적이고 놀라운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태어나 얼마 안 된 시점부터 여자는 이래야 한다, 소녀다운 건 이런 거야, 여자는 그러면 안 돼 같은 소리를 수시로 접한다. 여자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관한 이야기도 계속 전해진다. 보이지 않는 독가스처럼 “소녀”, “여자”의 이미지는 그렇게 서서히 스며들고 침투하여 실제 눈으로 보고 느낀 현실각각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저자는 70년대부터 현재까지 지난 35년간 대중문화에서 여성의 이미지가 어떻게 묘사되고 생산되어 왔는지 상세히 살펴보면서 여

성들이 알게 모르게 휘둘린 영향이 얼마나 엄청난지 조목조목 짚어본다. 진보적인 생각이 우세했던 70년대, 반항과 갈등의 시대 80년대, 성공 제일주의가 팽배했던 90년대, 그리고 21세기 초 '남성 문화'로 자리잡은 포르노문화에 이르기까지, 저자는 자신이 직접 경험하면서 얻은 통찰력과 면밀한 분석, 경험을 통합하여 이미 '답이 다 정해진 세상'에서 여성이 그 정해진 목표를 이루기 위해 발버둥치게 된 경위를 따져본다. 그리고 이처럼 여성의 이미지가 왜곡된 세상에 태어난 여자아이들을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 고민해보면서 여성들에게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유연하고, 몇 가지 유형으로 딱 잘라 분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며, 문화와 세상이 만들어낸 것보다 다채롭고 복합적인 존재이고 그것을 스스로 깨쳐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 <목차>

##### 머리말

##### 1부: 토끼 굴 속으로

1. 토끼들
2. 이 결혼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
3. 처녀인데 난잡하고 얼음공주에 싸가지 없는 여신의 동상
4. 이 기분 (플래시 댄스)
5. 무능력자가 되고픈 영원한 유혹

##### 2부: 눈물 바다

6. 결혼이나 죽음이나, 순진한 처녀의 선택
7. 완벽한 현대식 백합
8. 못된 여자친구
9. 본때를 보여주는 여자

##### 3부: 여긴 오지 말았어야 했어 (10- 15장)

##### 4부: 정신 나간 티 파티 (16- 21장)

#### <저자 소개>

카리나 초카노(Carina Chocano)는 「뉴욕타임스 매거진」과 「엘르」, 「뉴요커」, 「롤링스톤스」 등에 글을 기고해 왔다. 「LA 타임스」에서는 영화와 TV 프로그램 비평가로, 「엔터테인먼트 위클리」에서는 도서 비평가로, 「살롱」에서는 전속 작가로 일한 경력이 있다. 저서로는 『Do You Love Me, or Am I Just Paranoid?』 등이 있다.

제목 : THE SMART SOLUTION BOOK

가제 : 아이디어 똑똑하게 내는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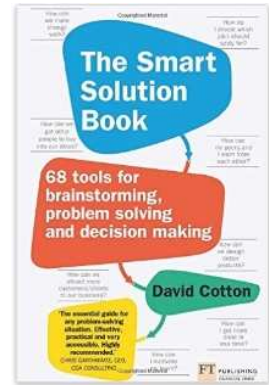
저자 : David Cotton

출판사: FT Publishing International

발행일: 2016년 10월 5일

분량 : 192 페이지

장르 : 자기계발



- \* “어떤 상황이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필수 가이드. 효과적이고 실용적이며 매우 쉽게 설명한 책이다.” - CGA 컨설팅 CEO, 크리스 가드웨이트
- \* “만인이 고민하는 문제는 만인이 풀 수 있다는 말처럼, 각자 겪고 있는 문제를 누구나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실용적인 가이드다.” - 스위스 취리히 업체 *papilio ag*, 피터 슈반

조직이나 팀의 대표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구성원은 그대로 따르는 시대는 갔다. 한때는 말 그대로 ‘우러러본다’는 표현까지 나왔던 부모와 자녀, 선생님과 학생, 상사와 부하직원의 격차는 점점 좁혀져 이제는 경험이나 경력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권위가 주어지는 것이 되려 이상하게 여겨지는 세상이 되었다. 조직 생활에 20년 이상 몸담고, 리더십 컨설턴트로 오랫동안 대기업부터 국가기관, 개인, 작은 단체까지 두루 만나온 저자는 의사결정의 주체에 관한 구 세대 경영인의 착각이 회사의 혁신과 발전을 막는 걸림돌이라고 이 책에서 지적한다. 소위 밀레니엄 세대로 불리는 젊은 구성원들은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어 하고, 실제로 이들이 가진 창의력과 무한한 가능성은 귀중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조직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를 전통적인 경영 해법으로 푸는 대신 이처럼 다양한 경력,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분야의 아이디어를 종합하여 해결책을 찾는 방식을 채택하여, 저자는 총 68개의 문제해결 전략을 이 책에서 소개한다. 세상도 조직을 경영하는 일도 갈수록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눈만 뜨면 또 새로운 문제가 생기는 것만 같을 때, 도저히 풀지 못할 문제만 나타나는 것 같을 때 활용할 수 있는 폭넓은 문제해결 툴이 제시된다.

모두 모여 앉아 브레인스토밍을 하듯 다양한 아이디어를 종합해서 탄생한 68개의 툴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어떤 상태인지 차근차근 분석하고, 답이 보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를 다양한 측면에서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는 경영자나 관리자 혼자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열린 마음으로 구성원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익숙지 않은 창의적 사고를 계속 연습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한 사람들을 적극 활용하여 생각의 폭을 넓히는 방법과 의사결정을 내릴 때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다른 방도가 없다는 이유로 주저하는 태도 대신 자신 있게 확신을 갖고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을 상세히 알려준다. 무엇보다 저자는 이 수십 가지 툴을 어느 시점에 어떻게 활

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또 각 툴의 장점과 한계를 명확히 설명하여 독자들이 각자가 처한 문제에 맞게 툴을 변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길을 더 넓게 열어두었다.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아이디어 창출 도구인 브레인스토밍을 적극 활용하여 아는 것, 경험한 것이 많을수록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유연한 생각과 태도로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친절하게 소개한 정보서다.

#### <목차>

저자 소개 / 머리말

- 1부. 어떤 도구를 언제 사용해야 할까
- 2부. 문제해결의 핵심
- 3부. 개인, 작은 집단을 위한 문제해결 기술
- 4부. 큰 집단을 위한 문제해결 기술
- 5부. 문제해결 비즈니스 게임
- 6부. 해결 방안의 공유와 실행

#### <저자 소개>

데이빗 코튼(David Cotton)은 회계법인 아서 앤더슨(Arthur Andersen)과 PwC에서 21년간 근무하고 2002년부터 리더십, 의사소통 기술 등을 알리는 경영 코치, 멘토로 일해왔다. 전 세계 4개 대륙에서 유럽 의회, 유럽 집행위원회, 유엔, BBC, 중동 지역 석유업체 등을 상대로 컨설팅을 진행했다. 저서로는 『Key Management Development Models』 등이 있다.

제목 : CINDERELLA'S FACEBOOK PROFILE

가제 : 신데렐라의 페이스북 프로필

저자 : Ildikó Boldizsár

출판사: 출판사 추후 확정

발행일: -

분량 : -

장르 : 자기계발



**\* 독일 판권계약 체결**

**\* “작가는 이야기 속에 담긴 진실에 늘 주목한다. 그리고 우리의 삶, 자신의 인생을 중심으로 읽을 때 비로소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 헝가리 신문 「Magyar Nemzet」**

아주 먼 옛날 원시시대를 살던 인류와 최첨단 기술이 가득한 세상을 사는 현대인의 공통점이 있다면, 세상을 살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와 맞닥뜨린다는 것이다. 주변 환경과 자신을 둘러싼 세계와 심각한 갈등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은 볼 수 없는 내면의 세계와 부딪히기도 한다. 인류 역사는 인간이 겪은 위기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위기’가 빠진 시대는 찾아볼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문제는 위기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극복해나가는냐에 달려 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나아가고 질적으로 어떤 수준에 도달하느냐는 위기에 대처하는 방식에 좌우된다. 문제 속에 폭 빠질 것인가, 그 위에 올라설 것인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것인가, 그저 주저 앉아 절망할 것인가? 위기를 전환점으로 삼아 변화하고 발전하고 성장할 것인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길을 잃고 말 것인가? 오랜 옛날부터 전해오는 이야기들, 특히 동화에 심취하여 연구해온 저자는 인류가 항상 위기와 문제에 시달려온 만큼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도 이미 마련되어 있으며, ‘이야기’가 그 영리한 해결장치의 하나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한다. 위기관리 프로그램으로서 이야기가 발휘하는 효과는 생각보다 훨씬 훌륭하고, 그 효과도 이야기만큼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입증되어 왔다. 저자는 1996년부터 이야기 치료사로 활약하면서 체감한 이야기의 이 대단한 특징을 설명하고 개개인이 마주한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해나가는 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들어 소개한다.

저자가 개발한 이야기 치료법은 10년 전 저서를 통해 처음 소개된 후 현재까지 5만 부 이상 판매되며 큰 호응을 얻고 병원, 학교, 교도소, 심리치료 기관 등에서 실제로 활용되고 있다. 언뜻 현대 사회와 무관할 것 같은 옛날 이야기에 담긴 인류 공통적인 고민과 갈등을 잘 포착하면 그 속에서 해결 방법도 찾을 수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번개, 호시탐탐 먹이를 찾아 헤매는 맹수들, 해가 지면 찾아오는 칠흑 같은 어둠은 인류에게 생사를 건 위협으로 다가왔고 사람들은 수수께끼 같은 온갖 위협과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고민했다. 그 과정에서 얻은 지혜는 ‘이야기’라는 형식을 빌려 입에서 입으로, 나중에는 글로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고 귀중한 지혜가 더해진 것이다. 저자는 “용이 해와 달, 별을 훔쳤다.”는 이야기를 현대식으로 해석하면 “삶에 아무런 희망도 의미도

없다.”는 의미가 되고, 그 옛날 이야기 속에서 용을 찾아내서 없애버리고 다시 해와 달, 별을 되 찾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듯 우리도 희망을 빼앗아간 것, 삶의 빛을 가져간 것을 찾아서 없애야 극복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저자는 이렇듯 상상 속 허황된 이야기로만 여겨질 수 있는 옛날 이야기와 동화 속에 아주 단순하면서도 명쾌하고 강력한 문제 해결 방안이 들어 있으며, 그 깊은 지혜를 활용하면 우리가 겪고 있는 심리적,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전한다. 참신한 자기치유, 자기계발 방법을 배울 수 있는 흥미로운 책이다.

#### <목차>

이야기는 곧 우리의 나침반

스토리텔러이자 치료사

모두의 이야기가 우리를 치유해주는 이야기로 바뀔 수 있을까?

지각의 존재

문제 속으로 깊이 들어갈 것

자물쇠를 열자

이제 수확할 차례

프로스트 아줌마의 이야기 - 중년 여성의 위기

하쿠나 마타타 - 가족 위계질서의 혼란

#### <저자 소개>

일디코 볼디즈사(Ildikó Boldizsár)는 헝가리 출신 논픽션 저술가로, 헝가리 과학원에서 동화 연구를 중심으로 한 연구원 생활을 마치고 1999년에 민속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출판 분야에서 편집자, 저술가로 20년 넘게 일했다. 현재는 동화를 이용한 심리치료사로 활동 중이며 헝가리에 세계 최초로 ‘동화 치료 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제목: CLEVERLAND

가제: 똑똑한 나라 (부제: 세계 최상급 교육 국가들의 성공 비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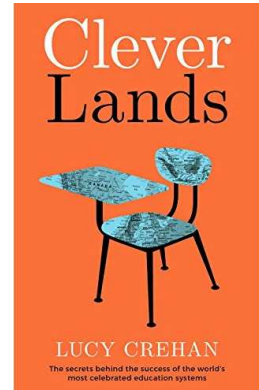
저자: Lucy Crehan

출판사: Unbound

발행일: 2010년 12월 1일

분량: 320 페이지

장르: 교육



- \* “공정한 시각으로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배울 것이 많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하는 책” - 「**Economist**」 ‘올해의 도서’ 선정 사유
- \* “이 책을 읽고 사려 깊고, 경험이 풍부하고, 세심한 교사들이 가득한 교육 시스템을 꿈꿨다” - 「**Bookseller**」

“유럽 학생들, 하향세”,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미국 학생들은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OECD 조사 결과: 핀란드 청소년들 읽기 실력 최상급”. 3년에 한 번씩 헤드라인은 이런 소식으로 넘쳐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3년에 한 번씩 15세 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읽기, 수학, 과학 분야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하는 프로그램, ‘PISA’ 결과에서 나온 소식들이다. 기술과 지식 현황을 파악하고 교육학적인 개선 방향과 표준화 방식을 찾기 위해 시작된 이 프로그램에 처음에는 43개국이 참여했지만 해가 갈수록 관심이 점점 뜨거워져 2015년 평가에는 무려 71개국이 참여했다. 처음 평가 결과가 발표된 이후, 실제로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자국의 교육 방식을 되돌아보고 재평가하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주력했다. 분석 보고서가 쏟아져 나오고, 교육 체계의 포괄적인 문제가 무엇이고 어떤 방향으로 변화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지에 관한 의견도 끊임없이 제기됐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일하다가 국가별 교육 성취도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사실에 놀란 저자는, 이 전문적인 보고서와 분석에 담긴 것 외에 더 뿌리 깊은 이유, 문화와 사회, 구성원들의 사고방식과 전통이 어우러져 빚어내는 한 나라의 교육적 특색이 무엇인지에 호기심을 느끼게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PISA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국가들을 직접 찾아가 교육 현장에서 직접 느껴보기로 결심한 저자는 핀란드, 일본, 싱가포르, 상하이, 캐나다를 누비는 길고 방대한 여정을 시작했다. 그리고 도표와 그래프로는 담아낼 수 없는 이들의 독특한 교육 방식에 관한 저자의 체험과 뛰어난 성과의 비결을 이 책에서 전한다.

“이 나라의 교실은 어떤 모습일까?” “핀란드 아이들은 일곱 살 전까지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데, 그게 내 아이에게도 더 나은 교육 방법일까?” 지극히 현실적인 이 궁금증에서 시작된 저자의 여정은 PISA 톱 10 국가 가운데 동아시아 국가들보다 높은 순위에 오른 유일한 서구 국가인 핀란드와, 문화적, 지리학적 다양성도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성적을 거둔 캐나다, 총점에서 항상 최고 순위를 놓치지 않는 중국 상하이, 도시국가가 아닌 전체 국가의 형태로 교육 체계가 운영되는 일본을 목적지로 선정하고 하나하나 직접 찾아갔다. 교육자의 입장에서 각 국을 방문한

저자는 공정한 판단을 위해 비공식적인 경로로 각급 학교를 방문하고 교육자와 학생들, 학부모의 생활 방식과 문화를 가까이서 들여다보았다. 방문한 국가는 모두 4주 이상 머물고, 세 곳 이상의 학교를 찾아가고, 한 학교에는 최소 일주일 이상 머물면서 교직원들과 친근한 관계를 맺으며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는 상대의 동의를 받아 정식으로 진행하기도 하고 국수 한 그릇을 사이에 놓고 수다 떨 듯이 진행하기도 했다. 또한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생들, 학교 관리자들, 학부모들을 다양하게 만나 각자의 생각과 교육에 대한 관심도, 목표를 심도 깊게 조사했다. 무엇이 수많은 국가들 중에서도 교육 수준에 단연 두각을 나타내는 차이를 만들었는지, 이 포괄적이고 흥미로운 조사 결과와 한 사람의 교육자로서 저자가 배우고 느낀 감상, 미래의 바람직한 교육 방향에 관한 견해가 모두 담긴 알찬 정보서다.

#### <목차>

1. PISA(국제학생평가프로그램)의 정치학, 그리고 여행 계획
  2. 유치원, 우화, 그리고 핀란드의 전문가들
  3. 핀란드에서 발견한 포괄적인 공통 견해
  4. 핀란드 교사들의 목표, 전문성, 신뢰
  5. 일본의 권위주의, 탄력성, 남을 귀찮게 하지 않는 사람들
  6. 사무라이, 능력주의, 그리고 ‘교육 전문 엄마들’
  7. ‘편안한 교육’, 과외, 그리고 일본의 문제해결 방식
  8. 싱가포르의 동적 지능, 우생학, 유동성
  9. 개인 과외와 공공의 압박
  10. 흥미, 커리어 계단, 동기의 심리학에 관한 연구
  11. 유교적인 사고방식
  12. 중국의 전설들, 중국의 ‘관시(인맥)’, 이민 노동자들
- (이하 생략, 총 18장과 맺음말로 구성)

#### <저자 소개>

루시 크레한(Lucy Crehan)은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심리학과 철학을 공부했다. 자폐아동 교육 분야에서 1년간 일한 뒤 런던에서 과학, 심리학을 가르치는 교사로 3년간 활동하고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석사 과정을 마쳤다. 이후 전 세계 다양한 교육시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교육 방식과 그 영향을 연구해 왔다.



제목 : THE IDEA GENERATOR

가제 : 아이디어 제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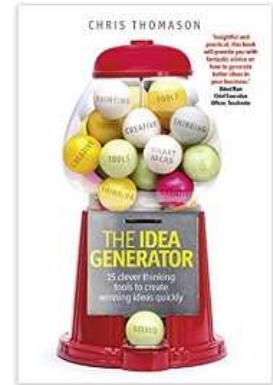
저자 : Chris Thomason

출판사: Pearson Business

발행일: 2016년 10월 3일

분량 : 192 페이지

장르 : 경영(리더십)



- \* “창의적인 새 아이디어를 내기 위한 전통적인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일상적으로 활용하면서 혁신을 만들 수 있는 귀중한 대안을 제시한다.” - *Mindwerx International*의 공동설립자 빌 제러드
- \* “뇌의 창의적 기능을 자극하는 방법에 관한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한 가이드” - *Telefonica Business Solutions*의 대표 알레한드로 마로토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꾼다는 말은 이제 너무 많이 들어서 별 감흥이 없는 흔한 광고문구쯤으로 여길 수도 있지만, 이 말 속에는 가치와 성과가 아이디어 하나로 결코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달라질 수 있다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 아마도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강조한 이런 말들에 크게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주 접해서가 아니라, 잘 알지만 ‘어찌할 수 없는’ 일로 여기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창의적인 사람은 따로 있고, 이미 자신은 그리 창의적이지 않은 사람인 것 같으니 일찍부터 포기하고 그냥 사고나 치지 말자는 식의 접근법으로 방향을 튼 건 아닐까? 회의를 하다가, 혹은 똑같이 업무를 추진하다가 난관에 봉착했을 때, 혹은 아주 사소한 일상 생활에서 아이디어가 반짝이는 사람들을 보면 감탄이 절로 나오지만 대부분 부러워하고 놀라워만 할 뿐,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려는 노력은 별로 안 하는 것 같다. 기업 혁신을 돕는 컨설턴트로 오랫동안 일해온 저자는 생각 하나로 한 사람이 얻을 수 있는 무수한 이점을 생각한다면 이런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이 책에서 창의적이지 못한 사람도 얼마든지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어느 정도 아이디어가 나오는 사람에게는 그 과정을 촉진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일과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언젠가부터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면 사람들은 자동으로 ‘브레인스토밍’을 떠올린다. 팀원들이 회의실에 모여 자유롭게 떠오르는 대로 생각을 이야기해보는 이 방식은 이미 50년 전부터 별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다른 방법을 찾을 ‘아이디어’가 없는 상황에서 계속 이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저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15가지 간단한 툴을 이 책에서 제시하고,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적절한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다.

거대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에게만 새로운 아이디어가 절실한 건 아니다. 참신한 아이디어는 회사나 조직의 규모뿐만 아니라, 사실 어떤 분야에서 무슨 일을 하든 모두에게 필요하다. 중대한 계약을 앞두고 경쟁사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회사는 물론이고 새로운 공부법이 필요한 학생들,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 수십 년 동안 한 직장에서 일하거나 집에

서 가사를 돌보다가 이제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보고픈 사람들에게도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저자는 그저 막막하게만 느껴질 수 있는 창의력 개선이라는 목표를 고루한 사고방식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전혀 다른 접근법으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이를 유기적인 방식으로 개인과 조직의 성장을 위해 활용하는 순서로 나누어서 차근차근 설명한다. 더불어 15가지 유용한 툴과 각각의 사용 방법을 제시하여 불가능해 보이는 사고방식의 전환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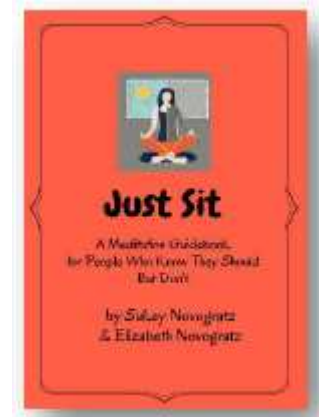
#### <목차>

1.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라
2.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너무 고루한 이유
3. 비즈니스 사고를 여는 새로운 길
4. ‘아이디어 발전기’식 접근법
5. 툴을 활용하라
6. 기회의 섬 (생각의 툴 1- 5)
7. 나누고 맞서 싸워라 (생각의 툴 6- 10)
8. 경계선 넘기 (생각의 툴 11- 15)
9. 아이디어 발전기, 팀 단위로 활용하기
10. 기업의 창의성을 강화하라

#### <저자 소개>

크리스 토마슨(Chris Thomason)은 혁신과 사업 성장, 소비자 경험 개선 분야에서 15년간 일해왔다. 영국 자동차 회사에서 일하다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이민을 떠나 금광 산업에서 경력을 쌓은 후 모잠비크에서 금광을 운영했다. 이후 호주로 가서 사업 혁신 컨설턴트로 일을 시작한 후 영국으로 돌아와 ‘Ingenious Growth’를 설립했다.

제목 : JUST SIT  
가제 : 일단 앉아요  
저자 : Sukey Novogratz and Elizabeth Novogratz  
출판사: Harper Wave  
발행일: 2017년 12월 26일  
분량 : 224 페이지  
장르 : 건강



**\* 몸과 마음에 모두 좋다는 건 다 알지만 실천이 안 되는 한 가지, 명상에 관한 간결하고 유쾌한 가이드**

**\* 페이지마다 가득한 일러스트레이션과 두 저자의 위트 넘치는 설명이 읽는 재미를 더하는 책**

명상에 특별히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아닌 이상, 대부분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처음 명상을 시작한다. 특히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변화를 원할 때 이런저런 방법을 찾다가 명상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충격적인 사고 등 트라우마로 남아버린 기억이 삶을 집어 삼킬 때, 혹은 큰 사건은 없지만 어수선하고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싶을 때 명상만큼 좋은 건 없다고들 이야기한다. 체험기를 보면 명상을 한 뒤에 건강해지고, 인내심도 많아지고, 집에서 부모나 자식 노릇도 더 잘 하게 되고, 창의력도 향상되고 혈압이 떨어지고 잠도 잘 자고 심지어 살이 빠졌다거나 주름이 사라졌다는 놀라운 이야기가 끊이질 않는다. 문제는 단 하나. 이렇게 효과가 좋다는 명상을 자신의 생활로 만드는 일이 참 어렵다는 것이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좀 찾아보려고 책이나 자료를 뒤지다 보면 어려운 용어나 이론 때문에 머리가 아플 때도 많다. 수천 명의 독자들에게 건강에 관한 뉴스레터를 발행하던 두 저자는 사람들이 유독 명상에 대한 이런 고민이 깊다는 사실을 접하고 해결에 나섰다. 워크숍이나 강좌도 듣고, 명상에 관한 책을 섭렵하고, 전 세계를 돌면서 저명한 명상 전문가, 스승들을 만나 공부했다. 그리고 짬 날 때 마다, 길에서건 집에서건 어느 나라 어떤 곳에 있건 명상을 했다. 이 모든 노력과 과정을 통해 왜 사람들이 쉽게 명상에 다가서지 못하고, 좋은 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지 마침내 깨달은 두 사람은 이 책에서 그 해답을 간단명료하고 유쾌하게 알려준다. 오랜 연구와 조사, 실천 끝에 소문대로 명상은 누구에게나 훨씬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더 명확히 깨달은 두 사람이 그래서 더 절실한 마음으로 정리한 명상법과 효과, 지극히 현실적인 실천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왜 명상은 시작이 어려운가?” “왜 명상은 꾸준히 실천하지 못할까?” 이 두 가지 의문을 해결해야 할 목표로 삼아 이 책은 명상에 관한 뿌리 깊은 오해를 해명하고, 정말 아무 도구 없이 아무런 마음의 준비나 이론적인 지식 없이도 편하게 시도해볼 만한 전략을 소개한다. 페이지마다 가득한 귀여운 일러스트레이션과 도표, 코믹한 표현들이 읽는 재미를 더하고 수다스러운 두 친구

가 좋은 정보를 알려주는 듯한 두 저자의 설명은 귀에 쏙쏙 들어온다. 하루에 단 20분, 잘 차려 입을 필요도 없고 특별한 장소나 도구도 필요 없이 밤낮도 가릴 필요 없이 스스로 필요할 때, 원할 때 명상에 돌입하고 그 무궁무진한 효과를 얻는 방법을 상세히 배울 수 있다. 이 모든 실천법은 8주 계획으로도 정리되어 있어 정해진 기간 동안 집중적인 훈련을 원하는 사람은 다양한 명상 기법과 접근 방식을 보다 집약적으로 활용해볼 수 있다.

부담 없이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고 싶은 사람, 평소 명상에 관심은 있었지만 선뜻 엄두가 나지 않았던 사람, 주변에 명상을 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이 있는데 명상을 하게끔 만들기가 어려웠던 사람 모두에게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 <목차>

서문 / 머리말

아주 짧은 역사: 명상이 서쪽으로 건너온 배경

1장. 간단한 소개: 제대로 앉는 법

2장. 명상을 안 하게 되는 이유

3장. 일단 앉아라. 무슨 일이 있건.

4장. DIY 명상: 내 방식대로

5장. 몸의 전류

6장. 마음의 게임: 쇼를 만드는 건 누구?

7장. 명상과 나: 어떤 존재로 세상에 살고 싶은가?

8장. 마음챙김 명상 연습: 삶을 살아가

#### <저자 소개>

수키 노보그라츠(Sukey Novogratz)와 엘리자베스 노보그라츠(Elizabeth Novogratz)는 8,000여 명의 구독자가 읽는 건강과 행복에 관한 일일 뉴스레터 'The Well Daily'를 발행하고 있다. 명상의 진정한 가치와 전통을 배우기 위해 인도, 티벳에서 저명한 명상 선구자들을 만나고 공부했다.